

4km 제외 37km 전 구간 지하로…사업비 3646억 늘어

광주도시철도 2호선 기본설계 3년 8개월만에 마무리

민선 6기들어 사업 재검토와 건설방식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던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이 마침내 2018년 3월 착공된다.

착공을 위한 첫 단추인 기본설계가 중단과 재개 등 논란 끝에 착수한 지 3년 8개월 만인 이달 마무리되면서 착공 시기가 결정된 것이다. 기본설계 결과 총사업비는 예비타당성 조사시 총사업비에 비해 3646억 원(7.7%)이 증가했다. 물가상승분과 땅값 상승분이 사업비 증가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푸른길 보존을 위한 사업비와 시민안전을 위한 시설보강 사업비가 반영되면서 총사업비가 증가했다.

광주시는 이번에 확정된 기본설계에 따라 연말까지 도시관리계획 시설을 결정 고

내년초 실시설계 시작

3단계 나눠 시공

6.5 이상 견딜 내진 설계

지하 상층 토피 1m정도 위에 슬래브 덮개를 씌우는 방식이다. 토피는 지표면과 지하철 사이의 땅 두께를 말한다. 애초 계획된 지상 구간 4.2km를 제외한 전 구간이 지하로 통과해 2호선도 사실상 ‘지하철’이 된 셈이다. 평균 토피 1m 깊이 구간은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 짚넨 묘안이다.

지상구간은 첨단대교, 광신대교, 유덕동 차량기지 등이다.

시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사업비 절감을 위해 도로 굴착, 터널 시공 등에서 최신품

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지진에 대비해 리히터 규모 6.5 이상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요 대학과 인구 밀집 지역 주변을 통과하는 순환선인 도시철도 2호선이 오는 2025년 완공되면 도시철도 수송 분담률은 현재 3.3%에서 12.07%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상무역과 남광주역에서 1·2호선 연계 환승으로 대중교통에서 소외되었던 시외곽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한결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1994년 3월 1호선과 함께 기본계획 승인 뒤 2010년 12월 예비 타당성 검토, 2011년 11월과 2013년 12월 두 차례 기본계획 변경을 거쳤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손학규 “강진 떠난다…나라 구하는데 저를 던지겠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왼쪽)가 20일 오후 전남 강진군 강진아트홀에 들어서며 지지자와 악수하고 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손학규가 바라본 강진 희망’이라는 주제로 다산강좌 강연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다산강좌 고별강연…“제가 무엇을 하는지 지켜봐달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20일 “나라를 구하는데 저를 던지겠다. 강진군민 여러분을 떠날 것”이라며 정계 복귀 의사를 재확인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전남 강진아트홀에서 열린 제255회 강진 다산강좌에 초청연사로 참석해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한다. 국민이 감지자, 심판이 돼 정치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선언했다.

손 전 대표는 지난 2년여를 강진에 살면서 느끼고 본 ‘손학규가 바라본 강진 희망’을 주제로 강연을 나눴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 “강진을 떠날 때가 돼서 강진 희망을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서 정계 복귀가 임박했음을 알리기도 했다. 손 전 대표는 “날짜는 미정이지만, 강진군민 여러분 곁을 떠날 것이다”면서 “이것이 나의 강진군민을 향한 공식적인 작별인사다”고 조만간 강진을 떠날 뜻을 밝혔다.

그는 강진에 유배를 왔던 개혁사상이 다산 정약용의 일대기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강연의 문을 열었다.

손 전 대표는 “지난 2년간 강진에서 얻은 가장 값진 것은 시대와 역사의 애환이 서린 강진만에서 다산의 정신적 유산을 배우고 호남의 정신과 문화를 호흡한 것”이라며 “이는 곧 나 자신을 새롭게 가다듬는 소중한 기회이자 밑거름이었고, 다산이 강진유배를 거치면서 근대 개혁사상가로 거듭났듯이 저 또한 다산의 삶을 새겨 개혁의지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강진에 접거하는 동안 기독교 세력의 국민 멸시와 총체적 정치 무

능을 보고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데 고민했다”면서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리라는 다산의 일갈처럼 백성의 삶 속으로 들어가 백성을 보듬었던 다산의 절박함을 받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은 불안하고 민주주의는 위태롭고 중산층과 서민의 삶은 무너지고 신뢰와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과 분노가 폭주하고 있다”면서 “작금의 국가적 위기는 분단체제와 기독교세력 적폐에서 비롯됐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그는 현 위기 해법으로 정권교체, 분단체제 변화, 기독교 지배질서에 대한 근본적 개혁 등을 제시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2014년 8월 5일 강진 집거를 시작한 이후 자신에게 도움과 배려를 베푼 지역 지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하면서 감사와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강진에 대한 애정과 인연을 소개하며 호남과 강진을 집거지로 삼은 배경으로 경기지사 시절 강진군과 교류, 경기도의 실학박물관 건립, 70년대 민주화 운동당시 강진의 교회를 방문한 경험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강진의 형상이 생명의 원천인 어머니이 자궁 같다. 다산이 위대한 개혁사상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강진에서 비롯됐다”며 강진의 이미지를 다산의 유배생활과 연관해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청중들에게 “제가 무엇이 되든지 보시고 제가 무엇 하는지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강연에는 군민·지지자 등 약 2000여명 참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800억 초고속 모금 靑개입 없인 불가능”

더민주·국민의당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총공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0일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자금 모금에 청와대 비선실세가 개입된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이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민주 오영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각종 특혜와 위법 정황이 드러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적법하게 조치하고, 모금된 자금이 불법 비자금에 되지 않도록 국정감사를 통해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민주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와 정상적인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관련 증인체택에 있어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새누리당이 관련 증인 체택을 끝까지 거부해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고 간다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과 관련해 권력형 비리 가능성 초점을 맞추고 공세를 펼쳤다.

송기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벌들이 정경련을 통해 486억원을 미르재단에, 288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각출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정도 돈은 청와대가 뒤에서 움직이지 않고서는 모을 수 없는 액수”라며 “과거 5공화국 당시 일해재단이 연상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이날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재단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K스포츠재단 이사장 자리에 자신이 단골로 드나들던 스포츠마사지센터 원장을 앉힌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방적인 추측성 기사로 전혀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TAEYOUNG 21 HOSPITAL

 **태영21병원**

인공신장센터 **오픈**

9월 1일

홈페이지 | www.ty21-endo.com

상담전화 | 진료 및 검진예약

(062)362-0075

신장실 | 직통

070-4165-7573

광주신세계백화점 건너편(국민은행 2F)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 · 정행진 · 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